

2024. 11.

2024년 4/4분기

김해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김해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김해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전망을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환경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기동향과 정부의 경제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4. 8. 21.(수) ~ 9. 3.(화) (휴일제외 10일간)
- 분석대상 : 100개 응답기업

(단위 : 개, %)

	기업규모		수출비중	
	50인 이상	50인 미만	수출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기업 (수출 50% 미만)
응답기업	24	76	34	66
응답비중	24.0	76.0	34.0	66.0

□ 조사내용

- 기업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실적 및 전망
-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금년 실적(영업이익) 및 4분기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
- 지정학적 리스크(미-중 갈등, 러-우 전쟁, 중동분쟁 등)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한 피해와 변화
-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
-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마련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전략

□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 기업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호전예상” 기업수} - \text{“악화예상” 기업수}}{\text{전체 응답기업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 과 ‘악화’ 로 응답한 기업 수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 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 로 응답한 기업이 많음

2 요약

□ 현황분석

○ 2024년 4분기 전망 '80.0' , 2024년 3분기 실적 '68.0'

- 김해지역 2024년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80.0로 전년도 동기 전망(65.0) 대비 15.0p 증가하였고, 직전 2024년 3분기 전망(76.2) 대비 3.8p 증가함.
-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금년 실적(영업이익)에 대해 묻는 질문에 '소폭 미달(10% 이내)(41.0%)' 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4분기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유가·원자재가 상승(28.3%)' , '내수소비 위축(21.0%)' , '고금리 등 재정부담(17.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지정학적 리스크(미-중 갈등, 러-우 전쟁, 중동분쟁 등)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일시적 위험' 으로 답한 기업이 37.0% 였으며, '매우 위험' , '위험' , '일시적 위험' 으로 응답한 경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로 경험한 피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에너지·원자재 조달비용 증가(23.7%)' , '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18.5%)' , '원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17.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기업 운영에 발생한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존 수출시장 외 신규 대체시장 발굴(52.4%)' , '해외조달 부품·소재의 국내조달 전환(26.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 '예측 불가능(38.8%)' 으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비 필요하나 마련 못함(53.1%)' 으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음.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있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했거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비용절감·운영효율성 강화(39.3%)' ,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29.4%)' ,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20.9%)' , '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8.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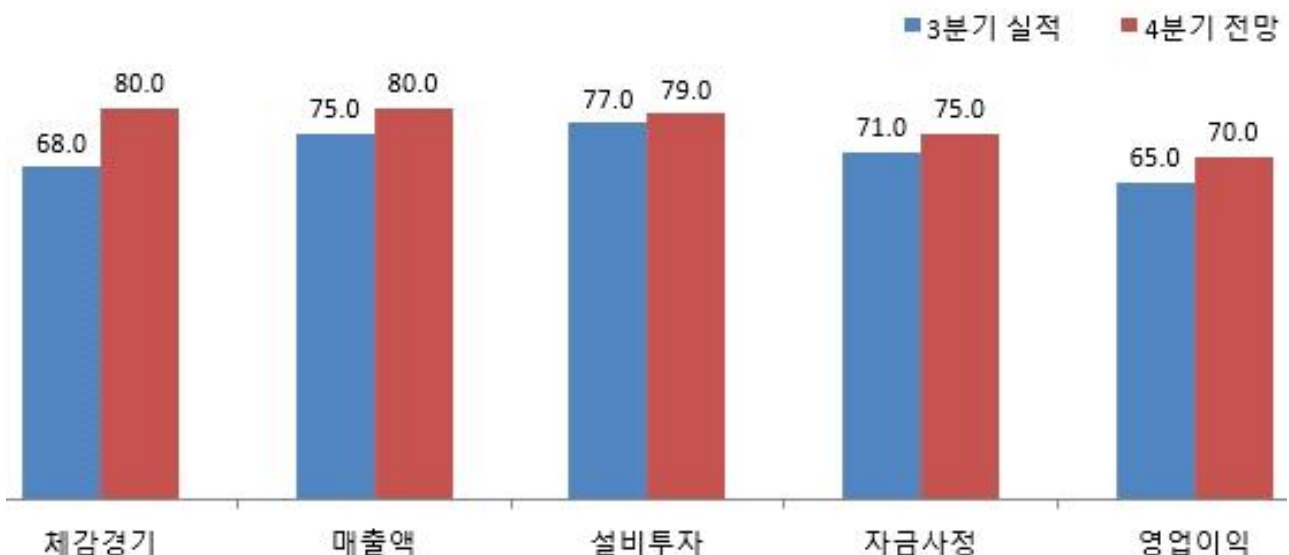
3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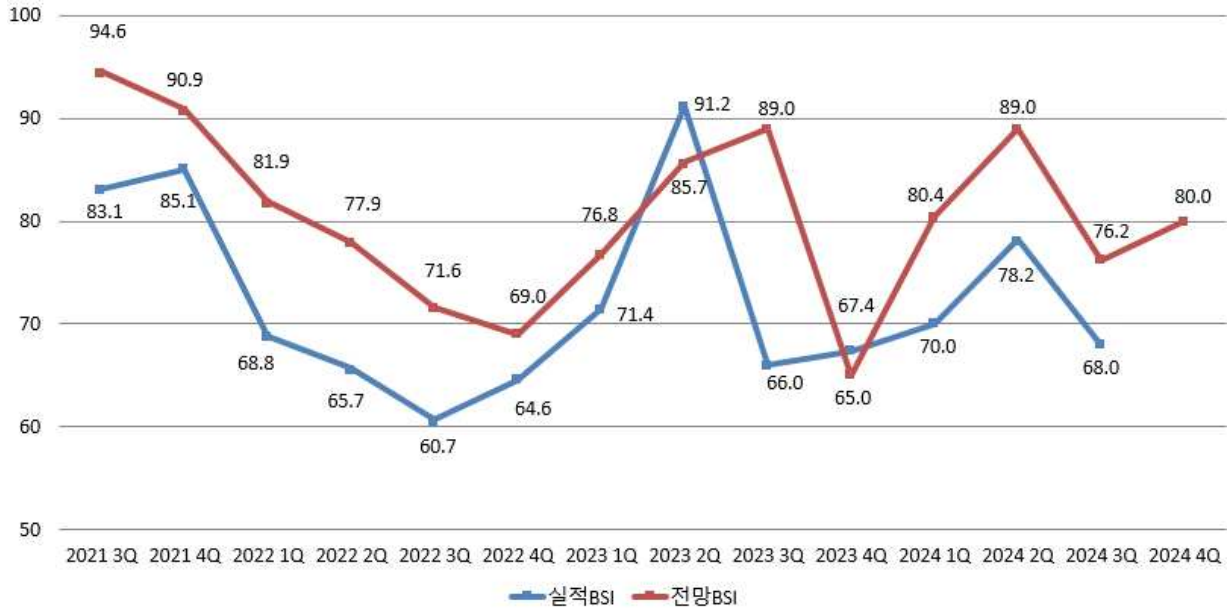
□ 김해 제조업 경기전망 및 실적

- 2024. 8. 21. ~ 9. 3.(휴일제외 10일간) 동안 김해지역 100개 기업에 대하여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표를 취합·분석한 결과, 김해지역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지수는 기준치에 밀린 80.0으로 전년도 동기 전망(65.0) 대비 15.0p 증가, 직전 2024년 3분기 전망(76.2) 대비 3.8p 증가한 결과로 나타남.
- 2024년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은 기준치를 넘지 못한 68.0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지난 분기 조사되었던 2024년 3분기 전망(76.2) 보다 8.2p 낮은 수치임.
- 2024년 4분기 전망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80.0)’, ‘매출액(80.0)’, ‘설비투자(79.0)’, ‘자금사정(75.0)’, ‘영업이익(70.0)’ 으로 모두 기준치를 밀린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실적 및 전망 >



< 김해지역 제조업 실적 및 전망 체감경기 추이 >



□ 기업규모별, 수출비중별 실적 및 전망

- 2024년 4분기 경기전망 지수를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71.1)’ 과 ‘50인 이상 기업(108.3)’ 으로 나타났고, 2024년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3.2)’ 과 ‘50인 이상 기업(83.3)’ 으로 차이를 보임.
- 수출비중에 따른 2024년 4분기 경기전망 지수는 ‘내수기업(86.4)’ 과 ‘수출기업(67.6)’ 으로 나타났고, 2024년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은 ‘내수기업(66.7)’ 과 ‘수출기업 (70.6)’ 으로 조사됨.

< 기업규모별 실적 및 전망 >

항목	분류	기업규모			
		50인 미만		50인 이상	
		3분기 실적	4분기 전망	3분기 실적	4분기 전망
체감경기		63.2	71.1	83.3	108.3
매출액		71.1	75.0	87.5	95.8
영업이익		59.2	63.2	83.3	91.7
설비투자		76.3	76.3	79.2	87.5
자금사정		69.7	72.4	75.0	83.3

〈 수출비중별 실적 및 전망 〉

항목	분류	수출비중			
		내수기업(50% 미만)		수출기업(50% 이상)	
		3분기 실적	4분기 전망	3분기 실적	4분기 전망
체감경기		66.7	86.4	70.6	67.6
매출액		74.2	84.8	76.5	70.6
영업이익		65.2	77.3	64.7	55.9
설비투자		78.8	77.3	73.5	82.4
자금사정		63.6	75.8	85.3	73.5

□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금년 실적(영업이익) 및 4분기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

○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금년 실적(영업이익)에 대해 묻는 질문에

- ① 크게 미달(22.0%)
- ② 소폭 미달(10% 이내)(41.0%)
- ③ 목표수준 달성(28.0%)
- ④ 소폭 초과달성(10% 이내)(7.0%)
- ⑤ 크게 초과달성(2.0%) 으로 응답하였음.

○ 4분기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 ① 유가·원자재가 상승(28.3%)
- ② 내수소비 위축(21.0%)
- ③ 고금리 등 재정부담(17.8%)
- ④ 수출국 경기침체(15.5%)
- ⑤ 환율변동성 확대(10.5%)
- ⑥ 기업부담법안 등 국내정책이슈(3.2%)
- ⑦ 기타(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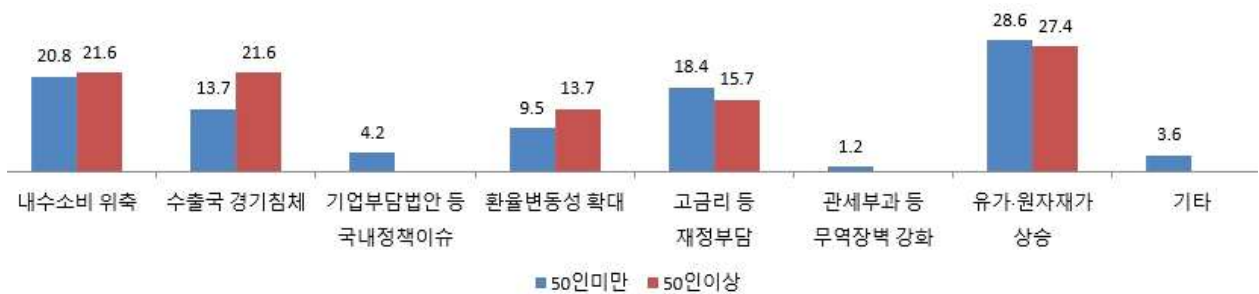
※ 기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환율하락, 물가·인건비 상승 등

- ⑧ 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0.9%) 순으로 응답함.

-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유가·원자재가 상승(28.6%)’, ‘내수소비 위축(20.8%)’, ‘고금리 등 재정부담(18.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50인 이상 기업’은 ‘유가·원자재가 상승(27.4%)’, ‘내수소비 위축(21.6%)’, ‘수출국 경기침체(21.6%)’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수출비중별 분석 결과, ‘수출기업’은 ‘수출국 경기침체(25.0%)’, ‘유가·원자재가 상승(25.0%)’, ‘내수소비 위축(14.8%)’, ‘환율변동성 확대(14.8%)’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내수기업’은 ‘유가·원자재가 상승(30.5%)’, ‘내수소비 위축(25.2%)’, ‘고금리 등 재정부담(22.2%)’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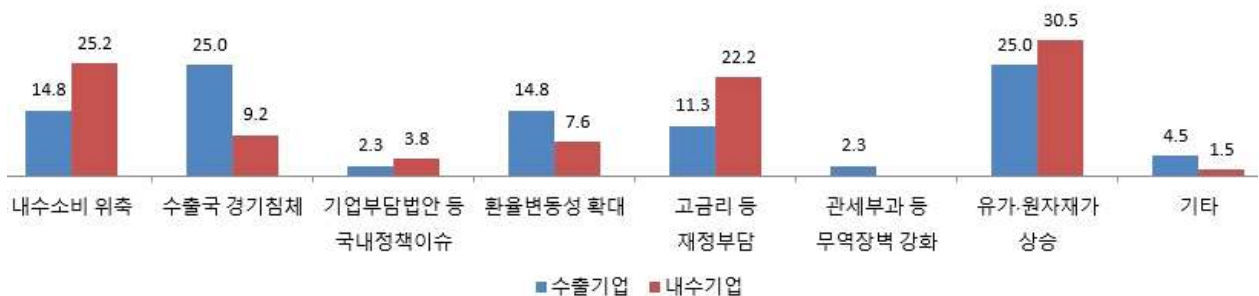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분석결과 >

(단위 : %)



< 수출비중별 분석결과 >

(단위 : %)



□ **지정학적 리스크(미-중 갈등, 러-우 전쟁, 중동분쟁 등)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한 피해와 변화**

○ 지정학적 리스크(미-중 갈등, 러-우 전쟁, 중동분쟁 등)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으며,

- ① 매우 위험 - 사업존속 위협수준(2.0%)
- ② 위험 - 경쟁력 저하 수준(27.0%)
- ③ 일시적 위험 - 일시적 실적 저하(37.0%)
- ④ 중립 - 큰 영향 없음(34.0%) 으로 응답함.

○ 또한 ‘① 매우위험 - 사업존속 위협수준(2.0%)’ 또는 ‘② 위험 - 경쟁력 저하 수준(27.0%)’ 또는 ‘③ 일시적 위험 - 일시적 실적 저하(37.0%)’ 으로 응답한 경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로 경험한 피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 ① 에너지·원자재 조달비용 증가(23.7%)
- ② 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18.5%)
- ③ 원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17.0%)
- ④ 환율변동·결제지연 등 금융 리스크(14.8%)
- ⑤ 해외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 감소(11.9%)
- ⑥ 현지 사업 중단 및 투자 감소(8.2%)
- ⑦ 기타(5.9%) 순으로 응답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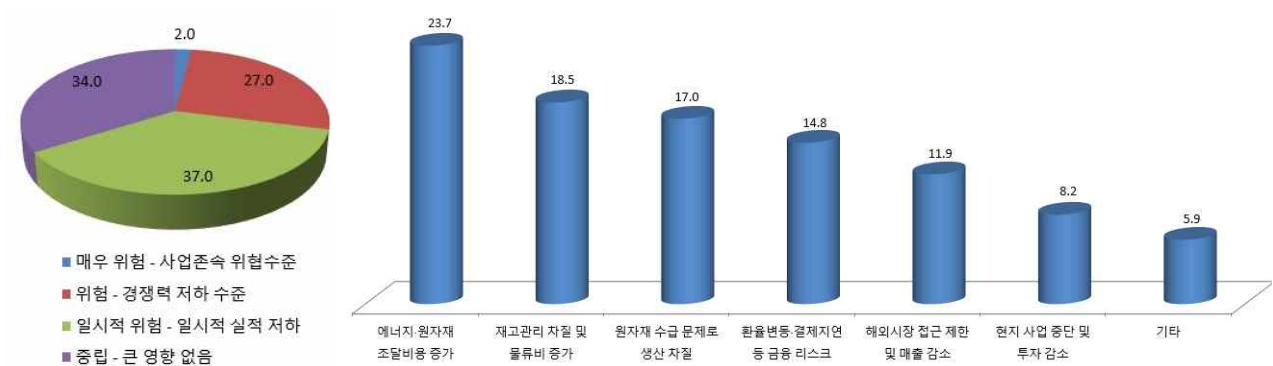
○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기업 운영에 발생한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

- ① 기존 수출시장 외 신규 대체시장 발굴(52.4%)
- ② 해외조달 부품·소재의 국내조달 전환(26.2%)
- ③ 대외 지정학 리스크 대응조직 신설(13.1%)
- ④ 해외 생산시설 축소 또는 철수(8.3%) 순으로 응답하였음.

<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한 피해 >

(단위 : %)

(단위 : %)



□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

○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

- ① 더욱 빈번할 것(20.4%)
- ② 지금 수준과 비슷할 것(31.6%)
- ③ 지금 보다는 완화될 것(9.2%)
- ④ 예측 불가능(38.8%) 으로 응답하였으며,

○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 ① 매우 필요, 대응책 이미 마련(1.0%)
- ② 대응 필요해 검토 중(35.7%)
- ③ 대비 필요하나 마련 못함(53.1%)
- ④ 필요성 없음(10.2%)으로 응답함.

□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마련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전략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있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했거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 ① 비용절감·운영효율성 강화(39.3%)
- ②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29.4%)
- ③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20.9%)
- ④ 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8.6%)
- ⑤ 기타(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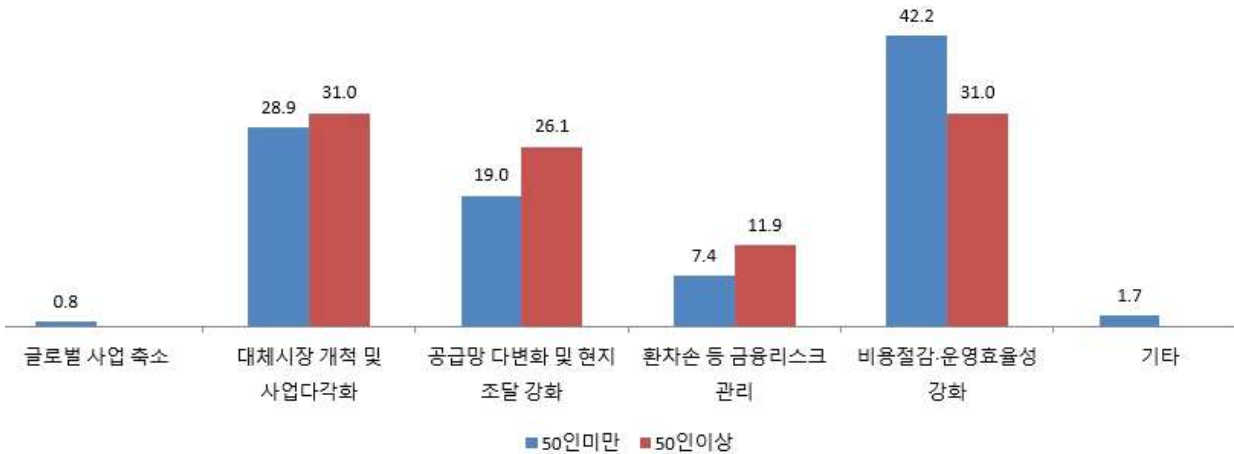
※ 기타 : 향후 대체시장 적극적 공략, 대응 전략 없음

⑥ 글로벌 사업 축소(0.6%) 순으로 응답하였음.

-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비용절감·운영 효율성 강화(42.2%)’,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28.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50인 이상 기업’은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31.0%)’, ‘비용절감·운영효율성 강화(31.0%)’,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조달 강화(26.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수출비중별 분석 결과, ‘수출기업’은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33.3%)’, ‘비용절감·운영효율성 강화(3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내수기업’은 ‘비용절감·운영효율성 강화(43.6%)’,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26.6%)’,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조달 강화(22.3%)’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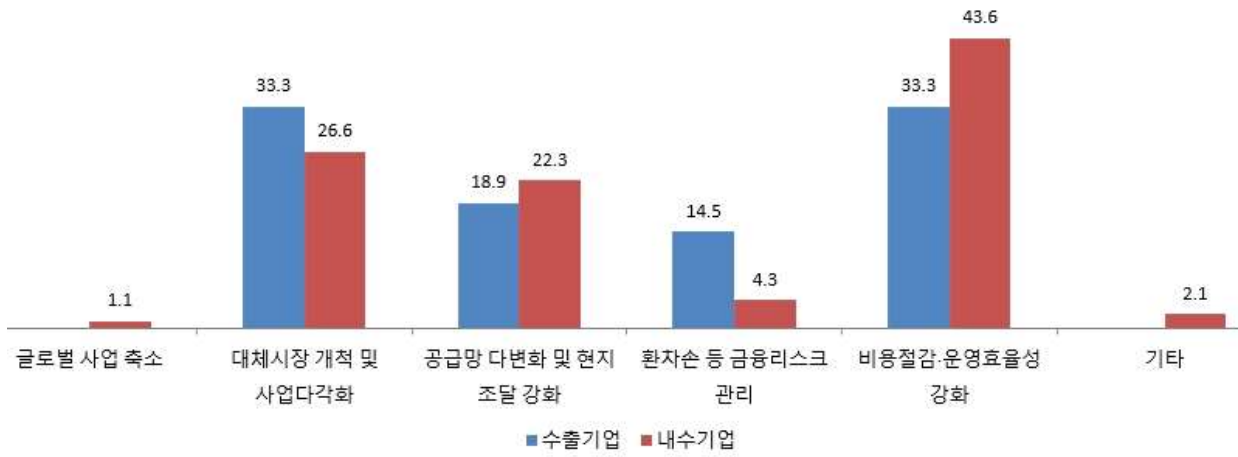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분석결과 >

(단위 : %)



< 수출비중별 분석결과 >

(단위 : %)



-끝-